

졸업식이 두 번 밖에 없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의 학생들은 태어나서 단 두 번 졸업식의 주인공
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치원 졸업식**이고,
두 번째는 **대학교 졸업식**입니다. 최소 네 번의 졸업식을
경험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유치원 졸업식은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주인공인 유치원생들을
위해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노래, 춤 연극, 코미디 등 공연을 준비하여 색다른 모습의 축제를 만들어 갑니다. 다양
한 공연을 보고 함께 즐기 위해 한별학교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유치
원 졸업식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올해에는 7월 4일 유치원 졸업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졸업장을 수
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상장 및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서로를 축하해주고 축하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는 특별히 우수 선생님을 표창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자가 평가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년에 학생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한 아동들이 대학교에 들어가 **두 번째 졸업식의 주인공**이 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회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 1 밀알복지재단에 보내주신 회원님의 편지는 번역 과정을 거쳐 2016년 1, 5, 9월에 사업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
다. 특별한 날 아동에게 편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 2015년 해외결연 새해편지 보내기 캠페인 “너의 2016년을 응원해”가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의 후원공간-회원 공지사항]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3 회원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 또는 1600-0966(회원전용번호)를 통해 정보를 변경해 주세요. 변경된
주소지로 후원해주시는 결연아동의 소식이 발송됩니다.



꿈꾸는 새싹들 이야기

지난해에 이어 2015년 1월에도 약 100여명의 홈리스(homeless)를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주최하였습니다. 학교와는 무관하게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준비로 이루어진 행사이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화로 약 500원씩을 모아 한 끼의 식사를 마련하고, 노래, 춤, 연극 등 준비한 공연을 하며 홈리스를 위로하였습니다. 회원님의 후원을 통해 배운 나눔을 실천하는 아동들의 모습에 모두의 마음이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홈리스 구제 활동



비전캠프



2014년에 진행되었던 한별캠프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올해 2월에는 7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비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참가 신청 접수가 5분 만에 완료된 본 캠프에 참여한 아동들은 1박 2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레크레이션, 체육활동, 캠프파이어를 통해 '우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한 특강을 통해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꿈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놀이문화가 부족한 에티오피아의 아동들이 비전과 더불어 우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바이댐 건설 퀴즈대회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4년 전부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아바이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 4월, 아바이댐 완공을 기원하며 달라시 지역에 위치한 30여개의 각 학교에서 '아바이댐 건설 퀴즈대회'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한별학교에는 6명의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5~9학년 학생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아바이댐과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역사, 문화유산 등 에티오피아에 대한 상식퀴즈를 맞추며 자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본 행사는 영예의 1등을 차지한 7학년의 트호트나 학생에게 영어, 수학 참고서를 전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치원 미술대회



2015년 11월,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동들은 회원님의 후원으로 2013년 10월부터 매주 1회 미술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아동들은 어느 때보다 집중한 모습으로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자랑하였습니다. 현지 담당자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훌륭한 작품이 많아 선생님들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아동들의 실력이 드러난 여러 작품 중 학년별로 우수한 작품 3점씩을 선정하여 부상으로 크레파스와 색연필, 종이를 나눠주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진행될 미술대회에서 더 멋진 작품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11월 27일, 에티오피아의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들이 항상 즐겁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체육대회와 퀴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어린이날 행사이지만 운동장에 삼삼오오 모인 1,000여명의 아동들은 어느 때보다 설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4학년의 저학년 학생들은 풍선 팽리 불기, 큰 공 안고 달리기 등을 참여하며 협동심을 배웠으며, 5~10학년의 고학년 학생들은 퀴즈대회에 참여하여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업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메라 특별활동반 운영



아프기만 한 아프리카가 아닌 희망을 품은 아프리카를 사진에 담고 싶다는 사진작가 신미식씨의 일회용 카메라 선물을 계기로 카메라 특별활동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선물받은 100명의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족, 친구, 강아지 등을 촬영하며 사진을 통해 마음을 담아내는 법을 배웠으며, 이 모습이 지난 5월 SBS 희망 TV를 통해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촬영한 사진들은 국내에서 전시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교내에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도 찍은 사진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사진에 찍힌 서로의 모습을 찾으며 모두가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편지



저는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을 전하며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도울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지금의 한별학교가
있을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는 회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도와 달라는 이야기 대신
"이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한지
어느덧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9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잘 해나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후원자님의
민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아동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프로젝트 매니저 정순자 드림

COMING
SOON

새싹들의 다음이야기



1학기 기말고사

2016년 1월, 전교생을 대상으로 1학기 기말고사를 실시할 예정

크리스마스 행사

에티오피아력에 따라 2016년 1월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할 예정

유치원 미술대회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미술대회를 진행할 예정